



신라 경순왕의 즉위를 통해 본 신라 하대의 왕위 계승 원리 혈연적 요인을 중심으로

Principles of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of the Late Silla Dynasty
through the Ascension of King Gyeongsun of Silla

저자 (Authors) 이천우
Lee Choun Woo

출처 (Source) [서강인문논총 54](#), 2019.4, 5-36(32 pages)

발행처 (Publisher)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008995>

APA Style 이천우 (2019). 신라 경순왕의 즉위를 통해 본 신라 하대의 왕위 계승 원리. 서강인문논총, 54, 5-3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23 11:3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경순왕의 즉위를 통해 본 신라 하대의 왕위 계승 원리 —혈연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천우*

1. 서론
2. 경순왕의 혈연관계에 대한 검토
3. 경순왕의 왕위 계승과 혈연에 기반한 왕위 계승 원리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의 즉위 요인을 살펴보면서 ‘혈연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작성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경순왕의 즉위를 검토함에 있어 ‘포석정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다. 무엇보다도 신라 하대 왕위 계승 원리에 대한 특정한 기준 없이 누가 왕위 계승권을 가진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출발점이었다.

신라의 왕위 계승 과정을 살펴봄에 있어 혈연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은 등치되어 다루어질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혈연적 요인이 여러 명의 왕위 계승 후보자들이 상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면, 그들 가운데 여러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특정 후보자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때문에 본고는 경순왕이 즉위할 수 있었던 혈연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장에서는 ‘족제’와 ‘표제’라는 사서간의 기록 차이에 대한 의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특히 『고려사』에서 확인되는 ‘족제’와 ‘표제’의 용례를 바탕으로 현재 이해되는 개념과는 달리 사용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신라 왕위 계승에 있어 직전 왕과의 혈연관계에 중요성을 언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신라 하대 왕위 계승 원리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경순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원

왕이 실제로는 신라 하대 왕위 계승권을 가진 인물로 보기는 어렵지만, ‘족제’라는 부계적 혈통의 용어를 통해 왕위 계승 자격의 미흡함을 보완하는 동시에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주제어 : 경순왕, 왕위 계승, 신라 하대, 족제, 표제

1. 서론

경애왕 4년(927) 견훤에 의해 옹립된 신라의 56대 왕인 경순왕은 935년 고려 태조에게 귀부함으로써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 남게 되었다. 경순왕은 ‘포석정 사건’과 그에 따른 ‘견훤의 옹립’이라는 남다른 즉위 배경, 그리고 신라의 마지막 왕이라는 점에 기인하여 기존 연구자들의 관심이 되어왔다. 이러한 연유로 경순왕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는데,¹⁾ 하나는 경순왕의 즉위와 당시 정치세력의 대립 관계에 천착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특히 경애왕 4년(927) 11월에 발생한 포석정 사건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른 하나는 경순왕이 신라왕조 멸망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신라의 멸망과 관련하여 그 원인에 대한 검토가 시도되었다.

전자는 견훤의 포석정 습격을 둘러싼 정치세력의 입장과 동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후자는 사회·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대외적 측면, 사상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라의 멸망 원인들이 검토되었다. 전자의 경우 박씨 왕의 실재 유무에 대한 논의²⁾를 시작으로, 견훤

1) 지면상 관련 연구성과들은 논지를 제시해나감에 있어 제시하도록 하겠다.

2) 1960~70년대 井上秀雄(「新羅朴氏王系の成立—骨品制の再検討—」, 『朝鮮學報』 47, 1968; 『朝鮮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과 이종항(「新羅의 下代에 있어서의 王種의 絶滅에 대하여」, 『법사학연구』 2, 1975)의 연구가 제시된 이후, 이들의 연구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연

의 포석정 습격 당시 김부로 대표되는 김씨 진골 세력이 견훤과 결탁을 했었는지의 유무에 따라 견해가 나뉘고 있다.³⁾ 후자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논자들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는데,⁴⁾ 이는 각각의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간단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경순왕에 대한 연구 경향은 경순왕의 즉위 배경과 신라의 멸망 요인을 둘러싼 정치적 요인들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신라 하대’가 혼란의 시기라는 기존 이해의 범주 속에서, 신라 정치권 내부에서 촉발된 갈등과 대립이 결국 경순왕으로 하여금 고려 태조에게 귀부하게 만들었다는 신라 멸망의 필연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⁵⁾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순왕의 즉위 배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정치적 요인들만이 강조된 나머지 그가 가진 혈연적 요인들이 간과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비단 경순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라 하대에 재위했던 왕들의 왕위 계승 과정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 이래 진골 아래의 신분에 속하는 인물들이 왕위에 오르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⁶⁾ 왕위 계승권을 가

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 3) 이분법적으로 구분했을 때, 견훤에 대한 경순왕의 타협 혹은 내용이 있었다고 본 연구자로는 신호철(「신라의 멸망과 견훤-견훤이 신라멸망에 끼친 영향-」, 『충북사학』 2, 1989), 조범환(「신라말 박씨왕의 등장과 그 정치적 성격」, 『역사학보』 129, 1991), 이명식(「신라말 박씨왕대의 전개와 몰락」, 『대구사학』 83, 2006), 권영오(「후백제군의 포석정 습격과 경순왕 응립」, 『한국고대사탐구』 13, 2013), 박순교(「신라 경애왕 죽음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삼국유사』 기록을 중심으로-」, 『국학연구논총』 16, 2015) 등이 있다. 반면 앞선 견해를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연구자로는 전기웅(「신라 하대말의 정치사회와 경문왕가」, 『부산사학』 16, 1989), 김갑동(「신라의 멸망과 경주세력의 동향」, 『신라문화』 10·11, 1994), 이기동(「후삼국시대의 전개와 신라의 종언-내란기 신라 조정의 내부사정-」, 『신라문화』 27, 2006) 등이 있다.
- 4) 이에 대해서는 신호철, 주 3)의 논문, 152쪽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 5) 김창겸, 「신라 경순왕의 가계와 그 신분」, 『신라문화』 44, 2014, 243쪽.

질 수 있는 자격 내지 조건들은 철저히 ‘골품제’에 의한 혈연적 요인들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신라 하대 왕위에 오르는 인물들의 출자를 살펴보면 모든 이들이 왕실과의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음이 확인된다.

물론 신라 하대 왕위 계승 과정에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적 요인들이 작용했다는 점은 사실이다.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 간의 관계 및 추이를 비롯한 당시 사회의 동향 등을 고려해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신라와 대외 관계를 맺고 있던 당과의 관계와 그 변화 등의 요인들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요인들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하거나, 그를 중심으로 한 친족 집단의 재편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즉 ‘신라 하대’가 혼란의 시기로 이해되는 만큼 수많은 정치적 변수들 역시 존재했겠지만, 그것이 신라의 긴 세월동안 작동되어 온 왕위 계승 원리의 변화를 초래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신라 하대의 왕위 계승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결국 신라의 왕위 계승 원리가 근거하고 있는 혈연적 관계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⁶⁾

6) 물론 효공왕에서부터 신덕왕, 경명왕, 경애왕, 경순왕에 이르기까지 골품제 규정을 적용한다면 모두 진골 신분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시된 바 있다. 김창겸, 『신라 하대 왕위계승 연구』, 경인문화사, 2003, 399~404쪽. 이 견해에 따르면, 경순왕의 즉위는 진골을 초월한 지위인 오직 ‘왕족’이라는 정치사회적 신분에 의한 것으로, 신라 김씨 왕족의 후손과 마지막 김씨 왕통인 경문왕가, 즉 헌강왕 사위의 아들인 동시에 당시 정치사회적 특수권력층의 인물이었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창겸, 주 5)의 논문, 256쪽. 그러나 신라 멸망기에 이르러 골품제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이기동,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146쪽; 이종욱, 『신라의 역사』 2, 김영사, 2002, 289~291쪽; 서의식, 『신라의 정치구조와 신분편제』, 해안, 2010, 436~438쪽) 뿐만 아니라 필자 역시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과연 진골이라는 신분을 배제한 뒤 ‘왕족’과 이를 중심으로 한 ‘royal family’라는 모호한 정치사회적 신분과 집단을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경순왕을 비롯한 효공왕~경애왕이 진골 출신이 아닌 신분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을 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혈연적 요인에 의한 왕위 계승 원리라는 이해 방식은 신라 하대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데 제약 요건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⁸⁾ 그럼에도 신라 하대의 왕위 계승 원리에 대한 이해 시도는 신라 하대의 역동성과는 별개의 이해방식을 요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전자의 경우 신라 하대 왕위 계승권자에 대해 대상군을 설정하는 큰 범주라면, 후자의 경우 전자에서 설정한 대상군에 속한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해주는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견훤에 의해 옹립되었던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의 사례라고 생각된다.

경순왕은 46대 문성왕의 齠孫으로서 56명의 신라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전왕의 族弟로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다. 또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表弟로 기록되어 있는데, 족제와 표제 모두 전왕과의 관계에 있어 처음으로 확인되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경순왕이 견훤에 의해 옹립되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다 보니 경순왕을 둘러싼 주변 상황에 대한 연구들만이 주로 제시되어 왔다. 그 결과 전왕이었던 경애왕의 ‘족제’인 경순왕이 어떠한 혈연적 기반을 바탕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채 경순왕의 父인 효종이 49대 헌강왕의 사위이므로, 경순왕은 헌강왕의 외손자 자격으로 왕위에 올랐을 것이라는 대략적인 가정만이 전제되어 왔다.⁹⁾

그러나 과연 신라 하대 왕위 계승 원리에 대한 특정한 기준 없이 누가

7) 이와 관련하여 경순왕의 가계와 신분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신라 골품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 연구도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효공왕에서 신덕왕으로 왕통의 변화는 단순히 골품제상의 변질이라기보다 신라 골품제국가의 실질적인 종말이라고 선언한 연구가 개진된 바 있다. 이기동, 주 6)의 책, 146쪽. 이종욱 역시 신라 왕정의 붕괴에 따라 골품제 역시 소멸해 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종욱, 주 6)의 책, 289~291쪽.

8) 이인재, 「나말여초 사회변동과 후삼국」, 『한국중세사연구』 29, 2010, 7쪽.

9) 경순왕이 49대 헌강왕의 외손자 자격으로 왕위에 올랐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왕위 계승권을 가진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본고에서는 신라 하대 왕들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혈연적 요인들을 검토하면서 신라 하대의 왕위 계승 원리의 특성을 분석해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순왕이 전왕의 족제로서 왕위에 오른 사실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시도를 통해 경순왕의 즉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형성되기를 기대해본다.

2. 경순왕의 혈연관계에 대한 검토

경순왕의 즉위에 대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1. 敬順王이 즉위하였다. 휘는 傳尼, 文聖大王의 裔孫이고 孝宗 이찬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桂娥太后이다. 甄萱이 세워서 즉위하였다(『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순왕 즉위조).¹⁰⁾
- A-2. 金씨이고, 이름은 傳이다. 아버지는 孝宗 伊于로, 神興大王으로 追封되었다. 할아버지는 官□ 角汗으로, 懿興大王으로 봉해졌다. 어머니는 桂娥太后로 憲康王의 딸이다(『삼국유사』 권1, 왕력편).¹¹⁾

A군 사료에 의하면 경순왕의 父가 효종, 母는 계아태후로 49대 헌강왕의 女임을 알 수 있다. 즉 효종은 헌강왕의 사위가 되므로, 경순왕은 헌강왕의 외손이 된다. 그런데 A-1은 A-2에서 전하지 않는 사실을 추가적으

10) “敬順王立. 諱傳, 文聖大王之裔孫, 孝宗伊湓之子也, 母桂娥太后. 爲甄萱所舉即位.”

11) “金氏, 傳. 父孝宗伊干, 追封神興大王. 祖官□角汗, 封懿興大王. 母桂娥太后, 憲康王之女也.”

로 전하고 있으니, 46대 문성대왕의 齋孫이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는 경순왕의 부계가 신라 하대 원성왕계 내의 예영계, 그 가운데서도 균정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모계의 경우 헌강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헌강왕은 경문왕의 태자로서, 원성왕계 내 예영계의 헌정계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기존에 효종과 계아태후의 혼인에 대해 예영계 내 가계 집단의 결합 내지 균정계와 헌정계의 결합 등의 구조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A군의 사료와 기존의 연구 경향을 고려한다면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문성왕과 경순왕 사이의 세대수와 활동 연대의 차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순왕이 문성왕의 ‘齋孫’임을 내세웠다는 사실이다. 먼저 세대수를 살펴보면, 자세한 계보 기록이 없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삼국사기』에서 ‘예손’이라 지칭했던 만큼 어느 정도의 세대수가 있음을 가늠해볼 수 있다.¹²⁾ 활동 연대 역시 문성왕의 재위기간이 839~857년이었던 반면 경순왕의 재위기간은 927~935년으로 대략 70여 년이 차이가 난다. 문성왕과 경순왕의 세대 수와 활동 연대를 고려할 때 경순왕 대 이르러 문성왕의 후손들 역시 상당수 존재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경순왕이 문성왕의 혈통을 내세우는 것은 왕위 계승의 정당성 확보에 있어 그 명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성왕의 후손이라는 혈연적 조건만으로 왕위 계승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둘째, 기존에 이해되어 왔던 신라 하대의 정치 운영 방식인 ‘가계 분지화론’¹³⁾이 왕위 계승 원리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지에 대한 의문

12) 경순왕의 선대에 대해서는 비록 후대에 작성되기는 했지만, 「新羅敬順王殿碑」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기는 하다. 그 내용에 따르면, ‘문성왕→金安→敏恭→仁慶→孝宗→경순왕’으로 복원할 수 있는데, 이를 신뢰한다면 문성왕은 경순왕의 5대조가 된다. 물론 비문 내용의 신빙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현재로서는 하나의 참고 사료 정도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13) ‘가계 분지화론’은 진골이 여러 개의 가계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단일한 혈

이다. 신라 하대에 일어난 왕위 계승 분쟁 과정을 살펴보면, 특정인을 공통 조상으로 분지화한 가계가 그들의 세력 기반으로 자신들에 가계를 표방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왕위 계승 분쟁에 가담했던 인물들을 예영계, 균정계, 헌정계 등과 같은 특정 가계로 분류한 것은 부계 계보를 중심으로 현대 연구자들이 상정한 구도에 불과하다.¹⁴⁾ 그렇다면 현대적 관점에서 상정된 분지화 된 가계가 당시에 어떠한 혈연적 명분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의 왕위 계승 과정에 있어 어떠한 방식을 통해 개입될 수 있었을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의문점들을 고려한다면, 경순왕이 문성왕의 후손이자, 헌강왕의 외손이라는 사실은 왕위 계승을 할 수 있었던 명분은 충족시킬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왕위 계승을 할 수 있었던 혈연관계였는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가 되는 사료가 있어 주목된다.

- B. 元聖王이 즉위하였다. 휘는 敬信이고 奈勿王의 12세손이다. 어머니는 박씨 繼烏夫人이고 비는 김씨이니 神述角干의 딸이다. 일찍이 惠恭王 말년에 逆臣이 跋扈하였는데, 宣德王이 이때 상대등이 되어 앞장서서 임금의 측근에 있는 악당들을 제거할 것을 제창하였다. 경신이 이에 참여하여 난을 평정하고 공을 세워서, 선덕왕이 즉위하자 상대등이 되었다. 선덕왕이 죽고 아들이 없었으니, 群臣이 후사를 의논하여 왕의 族子인 周元을 세우고자 하였다. 주원은 집이 서울 북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때마침 큰 비가 내려 關川의 물이 넘쳐 주원이 건너오지 못했다. 후자가 말하기를, “人君은 큰 자리라 본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폭우가 내린 것은 혹여 하늘이 주원을

연집단에서 분지화한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즉 하나의 부계 혈연집단이 가계 별로, 그리고 각 가계 내에서도 다시 소가계로 계속해서 분화해 나가면서 각각의 단위 세력을 형성하였다는 이해 방식이다. 특히 신라 하대는 이렇게 형성된 소가계들의 대표자들이 왕위를 두고 서로 경쟁하던 시기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재환, 「신라 진골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57~58쪽 참고.

14) 이재환, 주 13)의 논문, 85~86쪽.

세우고 싶지 않음이 아닐까. 지금 ㉞상대등 경신은 전왕의 아우이며 덕망이 평소애 높아 人君으로서의 風體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의견을 모아 그를 세워 왕위를 잇게 하였다. 이윽고 비가 그쳤으니, 國人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원성왕 즉위조).¹⁵⁾

B에 의하면 선덕왕이 죽고 아들이 없자 왕의 족자인 김주원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마침 큰 비가 내려 알천의 물이 넘치게 되자, 알천 건너에 있던 김주원이 건너오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등 김경신을 추대하여 왕위를 계승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때 ‘왕의 족자’인 주원을 왕위에 세우고자 했다는 점(B-㉞)과 혹자가 김경신을 추대하는 근거로 덕망과 외모와 함께 ‘전왕의 아우’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B-㉞)이 주목된다.

주원은 무열왕의 둘째 아들인 김인문의 5대손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¹⁶⁾ 선덕왕과의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B-㉞의 ‘족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혈연관계를 의미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분명한 것은 선덕왕 사후 주원이 제1의 왕위계승권자라는 지위를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직전 왕이었던 선덕왕의 ‘족자’라는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다.

경신은 내물왕의 12대손으로 고조할아버지는 대야찬 법선, 증조할아버

15) “元聖王立. 諱敬信, 奈勿王十二世孫. 母朴氏繼烏夫人, 妃金氏神述角干之女. 初惠恭王末年, 叛臣跋扈, 宣德時爲上大等, 首唱除君側之惡. 敬信預之, 平亂有功, 泊宣德即位, 邦爲上大等. 及宣德薨, 無子, 群臣議後, 欲立王之族子周元. 周元宅於京北二十里, 會大雨, 闕川水漲, 周元不得渡. 或曰, “即人君大位, 固非人謀. 今日暴雨, 天其或者不欲立周元乎. 今上大等敬信, 前王之弟, 德望素高, 有人君之體.” 於是, 衆議翕然, 立之繼位. 既而雨止, 國人皆呼萬歲.”

16) 최병현, 「신라하대 선종구산과의 성립」, 『한국사연구』 7, 1972, 460쪽; 이기동, 주 6)의 책, 146쪽; 신형식,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1984, 170쪽. 한편 김주원을 김인문 가계로 보지 않고 무열왕의 셋째 아들인 김문왕의 5대손으로 보는 견해 역시 제기된 바 있다. 김정숙, 「김주원 세계의 성립과 변천」, 『백산학보』 28, 1984. 그러나 『慶州金氏族譜』와 『江陵金氏族譜』에, 思仁을 무열왕의 셋째 아들인 文王의 후손으로 각각 大忠의 아들이고, 이찬 金周元이 그의 손자라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만큼 사료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지는 이찬 의관, 할아버지는 이찬 위문이었다.¹⁷⁾ 그의 부는 B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대아찬 효양, 모는 계오부인으로 박씨이며, 비는 신술각간의 女였다. 그러나 선덕왕은 내물왕의 10대손으로 부는 해찬 효방이었으며, 모는 김씨 사소부인으로 성덕왕의 女였다.¹⁸⁾ 이러한 계보를 고려한다면, B-⑥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경신이 선덕왕의 아우라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구당서』와 『신당서』에 각각 종형제¹⁹⁾와 종부제²⁰⁾라고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경신과 선덕왕이 종형제였음을 추정할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²¹⁾ 그러나 이는 외교상에서 신라가 당에 전한 것일 뿐이므로 정확한 사실 관계라 보기 어려우며, 선덕왕에 이어 즉위한 원성왕이 전왕과의 혈연관계를 내세움으로써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²²⁾ 중요한 것은 ‘전왕의 아우’ 혹은 ‘종형제’ 내지 ‘종부제’라는 표현 모두 직전왕이었던 선덕왕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언급되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김주원이 무열왕계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또한 김경신이 내물왕

17)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원성왕 원년 2월, “二月, 追封高祖大阿滄法宣爲玄聖大王, 曾祖伊滄義寬爲神英大王, 祖伊滄魏文爲興平大王, 考一吉滄孝讓爲明德大王. 母朴氏爲昭文太后, 立子仁謙爲王太子.”

18)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선덕왕 즉위조, “宣德王立. 姓金氏, 諱良相. 奈勿王十世孫也, 父海滄孝芳. 母金氏四炤夫人, 聖德王之女也.”

19) 『구당서』 권199, 열전149, 동이 신라전, “(전략) 其年, 良相卒, 立上相敬信爲王, 令襲其官爵. 敬信卽從兄弟也. (후략)”

20) 『신당서』 권220, 열전149, 동이 신라전, “貞元元年(785), 遣戶部郎中蓋瑱持節命之. 是年死, 立良相從父弟敬信襲王. (후략)”

21)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96(개정판), 163쪽. 한편 이기백은 중국 정사의 내용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선덕왕이 내물왕의 10세손, 경신이 내물왕의 12세손이라고 한 것이 옳다면 양자를 형제간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모계에 의한 종형제간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기백, 『상대등고』, 『역사학보』 17·18, 1962;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114쪽에 재수록.

22) 선석열, 『신라 왕위계승 원리 연구』, 해안, 2015, 233쪽.

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 자격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들은 비록 구체적인 혈연관계의 실상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각각 ‘족자’와 ‘아우’라는 표현을 통해 직전 왕이었던 선덕왕과의 혈연적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왕위 계승 후보자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신라 하대 왕위 계승 원리에 있어 직전 왕과의 일정한 혈연적 관계가 전제되어야만 왕위 계승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경순왕 역시 문성왕의 후손이나 헌강왕의 외손이라는 사실보다는 직전 왕이었던 경애왕과의 관계 속에서 왕위 계승 후보자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애왕과 경순왕의 관계를 알려주는 사료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C-1. 가을 9월에甄萱이高鬱府에서 우리신라 군사를 침범하였다. 왕이 태조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장수에게 명하여 정예 병사 1만을 내어 가서 구원하도록 하였다. 견훤은 구원병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겨울 11월에 갑자기王京을 공격해 들어갔다. 왕은 비빈, 종실 친척들과鮑石亭에서 잔치를 열고 노느라 적병이 이르렀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갑작스러운 일에 어찌할 바를 몰라, 왕과 비는後宮으로 도망쳐 들어가고 종실 친척과 공경대부와 부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 숨었다. 적의 포로가 된 자들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며 땅을 기면서 노복이 되기를 구걸했으나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견훤은 또 그의 병사들을 이끌고, 재빨리公私의 재물 모두 빼앗고, 궁궐로 들어가 좌우에 명하여 왕을 찾도록 하였다. 왕은 비와 첩 몇 명과 후궁에 있다가 군대 진영으로 잡혀갔는데, [견훤이] 핍박하여 왕을 자살하도록 하고 왕비를 강간하였으며 부하들이 비와 첩을 간음토록 내버려두었다. 왕의 族弟를 權知國事로 세우니, 그가 敬順王이다(『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애왕 4년 秋9월조).²³⁾

23) “秋九月, 甄萱侵我軍於高鬱府. 王請救於太祖, 命將出勁兵一萬往救. 甄萱以救兵未至, 以冬十一月, 掩入王京. 王與妃嬪·宗戚, 遊鮑石亭宴娛, 不覺賊兵至. 倉猝不知所爲, 王與妃奔入後宮, 宗戚及公卿大夫·士女四散, 奔走逃竄. 其爲賊所虜者, 無貴賤皆駭汗匍匐, 乞爲奴僕而不免. 萱又縱其兵, 剽掠公私財物略盡, 入處宮闕, 乃命左右索王. 王與妃·妾數人在後宮, 拘致軍中, 逼令王

C-2. (927)겨울 10월에 태조가 군사를 출동시켜 도와주려고 하였는데, 견훤이 갑자기 신라 왕도에 들어갔다. 그때 왕은 부인과 후궁들과 함께 포석정에 나가서 놀면서 술자리를 벌여 즐기고 있었는데, 賊兵이 이르자 낭패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은] 부인과 함께 성 남쪽의 별궁으로 돌아왔고, 여러 시종하던 신료들과 궁녀 및 악사들은 모두 반란군에게 잡혔다. 견훤이 군사를 풀어 크게 약탈하고 사람을 시켜 왕을 잡아오게 하여 앞에 이르자 그를 죽였다. 곧 궁중에 들어가 거처하면서 부인을 강제로 끌어내 능욕하였다. 왕의 族弟 金傅로 하여금 이어서 왕이 되게 하였다. 그런 후에 왕의 동생 孝廉과 재상 英景을 포로로 잡고, 또 국가 창고의 진귀한 보물과 병장기를 빼앗고, [귀족의] 자녀들과 온갖 장인 중 솜씨가 있는 자들은 스스로 따르게 하여 돌아갔다(『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조).²⁴⁾

C-3. 제56대 김부대왕의 시호는 敬順이다. 천성 2년 정해 9월에 백제의 견훤이 신라를 침범해서 고을부에 이르니 경애왕이 우리 (고려) 태조에게 구원을 청했다. 장수에게 명하여 정예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했는데, 구원군이 미처 이르기도 전에 견훤이 겨울 11월에 왕경으로 쳐들어갔다. 왕은 비빈·종척들과 포석정에서 잔치를 열고 즐겁게 놀고 있었기 때문에 적병이 오는 것도 알지 못하다가 창졸간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과 비는 달이나 후궁으로 들어가고 宗戚 및 公卿大夫와 士女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다가 적에게 사로잡혔으며, 貴賤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땅에 엎드려 奴婢가 되기를 빌었다. 견훤은 병사들을 놓아 公私 간의 재물을 약탈하고 王宮에 들어가서 거처하였다. 이에 좌우 사람을 시켜 왕을 찾게 하니 왕과 婢妾 몇 사람이 후궁에 숨어 있었다. 이를 軍中으로 잡아다가 왕은 억지로 自決해 죽게 하고 왕비를 옥보였으며, 부하들을 놓아 왕의 嬪妾들을 모두 옥보였다. 왕의 族弟인 金傅를 세워 왕으로 삼으니 왕은 견훤에 의해 즉위한 셈이다. 前王의 시체를 西堂에 안치하고 여러 신하들과

自盡，強湣王妃，縱其下亂其妃。妾。乃立王之族弟權知國事，是爲敬順王。”

24) “冬十月，太祖將出師援助，蒼猝入新羅王都。時王與夫人嬪御，出遊鮑石亭，置酒娛樂，賊至狼狽，不知所爲。與夫人歸城南離宮，諸侍從臣寮及宮女·伶官皆陷沒於亂兵。蒼縱兵大掠，使人捉王，至前戕之。便入居宮中，強引夫人亂之。以王族弟金傅嗣立。然後虜王弟孝廉·宰相英景，又取國帑·珍寶·兵仗，子女·百工之巧者，自隨以歸。”

함께 통곡했다. 太祖가 使臣을 보내어 조문하고 제사하였다(『삼국유사』 권2, 기이2, 김부대왕조).²⁵⁾

- C-4. 4년에 진호가 갑자기 죽자 일부러 죽인 것이라고 의심해서 즉시 왕신을 가두고 사람을 보내서 전년에 보낸 총마를 돌려보내라고 하니 태조는 웃으면서 돌려보냈다. 천성 2년 정해 9월에 견훤은 近品城(지금의 山陽縣)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니, 신라왕이 태조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태조는 장차 군사를 내려는데 견훤은 高鬱府(지금의 蔚州)를 습격하여 빼앗고 族始林(혹은 鷄林의 서쪽 교외)으로 진군하여 줄지에 신라 왕도로 들어갔다. 신라왕은 부인과 함께 鮑石亭에 나가 놀고 있을 때여서 이로 말미암아 더욱 쉽게 패하였다. 견훤은 왕의 부인을 억지로 끌어내어 욕보이고 왕의 族弟 金傅로 왕위를 잇게 하였다. 그런 후에 왕의 아우 孝廉과 재상 英景을 사로잡고, 또 나라의 귀한 보물과 무기와 자제들이며 여러 工人 중에 우수한 자들도 친히 데리고 갔다(『삼국유사』 권2, 기이2, 후백제 견훤조).²⁶⁾

- D-1. 견훤이 近品城을 공격해 불태운 후, 신라의 高鬱府를 기습함으로써 수도 부근까지 바짝 다가오자 신라 국왕(경애왕)이 連式을 보내어 위급함을 알려왔다. (중략) 견훤은 군사를 도성에 풀어서 마구 약탈하게 했으며, 궁궐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는 사람들을 시켜 왕을 찾아내게 한 다음 군영에 가둔 채 강제로 자결하게 했다. 또 강제로 왕비를 욕보였으며 자기 부하들을 풀어서 嬪妾들을 강간하게 했다. 이어 왕의 表弟 金傅를 왕으로 세워 놓고 경애왕의 동생 朴孝廉과宰臣 英景 등을 포로로 해서 백성들과 각종 장인, 병장기와 진귀한 보

25) “第五十六金傅大王諡敬順。天成二年丁亥九月，百濟甄萱侵羅至高鬱府，景哀王請救於我太祖。命將以勁兵一萬往救之，救兵未至，萱以冬十一月掩入王京。王與妃嬪、宗戚遊鮑石亭宴娛，不覺兵至倉卒不知所爲。王與妃奔入後宮，宗戚及公卿大夫士女四散奔走爲賊所虜，無貴賤匍匐爲奴婢。萱縱兵擄掠公私財物，入處王宮。乃命左右索王，王與妃數人匿在後宮。拘致軍中，逼令王自進而強淫王妃，縱其下亂其嬪妾。乃立王之族弟傅爲王，王爲萱所舉卽位。前王尸殯於西堂與羣下慟哭。我太祖遣使弔祭。”

26) “四年眞虎暴卒，疑故殺卽囚王信，使人請還前年所送驄馬，太祖笑置之。天成二年丁亥九月，萱攻取近品城(今山陽縣)燒之，新羅王求救於太祖。太祖將出師，萱襲取高鬱府(今蔚州非也)，進軍族始林(一云雞林西郊)卒入新羅王都。新羅王與夫人出遊鮑石亭時，由是甚敗。萱強引夫人亂之，以王之族弟金傅嗣位。然後虜王弟孝廉，宰相英景，又取國珍寶兵仗子女百工之巧者自隨以歸。”

물을 모조리 약탈한 후 돌아갔다(후략)(『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10년 정해 9월조).²⁷⁾

- D-2. 견훤이 근품성을 쳐서 이를 불사르고 나아가 신라의 고을부를 습격하고 서울 교외에 가까이 이르니, 신라왕이 連式을 보내어 급함을 알리고 구원을 청하였다. (중략) 이때 신라왕은 夫人과 嬪御, 宗戚과 함께 포석정에 나와 술자리를 베풀고 즐기다가 뜻밖에 적병이 왔다는 말을 듣고 창졸간에 어찌할 줄 몰랐다. 왕과 부인은 성 남쪽의 이궁으로 달아나고 侍從臣僚와 宮女, 伶官들은 모두 함몰되었다. 견훤이 군사를 놓아 크게 약탈하고, 왕궁에 들어가 거처하였다. 좌우 사람들을 시켜 왕을 찾아내어 軍中 안에 두고 핍박하여 자살하게 하고, 왕비를 강제로 옥보였고, 그 부하를 놓아 嬪妾들을 난행하게 하였다. 왕의 表弟 김부를 세워 왕으로 삼고 왕의 아우 虬諲과 宰臣 영경을 사로잡고, 자녀와 각종 工人과 무기, 보물을 모조리 가지고 돌아갔다(『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10년 정해 9월조).²⁸⁾

C군과 D군은 경애왕 4년 견훤의 포석정 습격에 대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사료로서, C군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D군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기록이다. C-1과 C-2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왕을 수행한 사람 및 장소, 그리고 견훤이 습격한 시점²⁹⁾ 등에 대한 약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C-3,4 역시 C-1,2의 내용을 축약된 형태로 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D군의 내용 역시 C-2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신라 사신 連

27) “甄萱攻燒近品城，進襲新羅高鬱府，逼至郊畿，新羅王遣連式告急，(중략) 萱猝入新羅都城。時羅王與妃嬪宗戚，出遊鮑石亭，置酒娛樂，忽聞兵至，倉卒不知所爲。王與夫人，走匿城南離宮，從臣伶官宮女，皆被陷沒。萱縱兵大掠，入處王宮，令左右索王，置軍中，逼令自盡。強辱王妃，縱其下，亂其嬪妾。立王表弟金傅爲王，虜王弟孝廉，宰臣英景等，盡取子女百工兵仗珍寶以歸(후략).”

28) “甄萱攻近品城，燒之，進襲新羅高鬱府，逼至郊畿。新羅王遣連式來告急，請救之。(중략) 時，王與夫人嬪御宗戚出遊鮑石亭，置酒娛樂，忽聞兵至，倉卒不知所爲。王與夫人奔走城南離宮，侍從臣僚宮女伶官皆被陷沒。萱縱兵大掠，入處王宮。令左右索王，置之軍中，逼令自盡，強辱王妃，縱其下，亂其嬪妾。乃立王之表弟金傅爲王，虜王弟孝廉宰臣英景，盡取子女百工兵仗珍寶，以歸。(후략).”

29) 이러한 약간의 차이점에 의문을 표하면서 인용하는 사료에 따른 구체적인 날짜를 검토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권영오, 주 3)의 논문, 182쪽.

式 등 C-2에는 등장하지 않는 구체적인 인명이 확인된다. 종합해본다면, C군과 D군의 사료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 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애왕과 경순왕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 C군과 D군에서는 달리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C군의 경우 경순왕을 경애왕의 ‘족제’라고 지칭한 반면 D군은 ‘표제’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족제는 일반적으로 성과 본이 같은 사람들 가운데 유복친 안에 들지 않는 같은 항렬의 아우뻘인 남자를 지칭하며, 표제는 姑從弟, 姨從弟, 外從弟를 지칭한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착안하여, 족제와 표제라는 표현은 김씨인 경순왕이 박씨인 경명왕, 경애왕과 모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³⁰⁾ 이러한 견해는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경순왕을 단순히 경애왕의 집안 동생 내지는 친척 동생으로만 이해해 왔다.

그러나 과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족제와 표제의 개념이 신라 사회와 고려 사회에도 같은 범주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료상에서 족제와 표제로 지칭되는 인물들의 가계를 확인하여 각각의 용어들이 지칭하는 가계 범주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사료는 『고려사』에서 족제와 표제로 지칭되는 인물들에 관한 내용이다.³¹⁾

30) 장동익, 「김부의 책상부고에 대한 일검토」, 『역사교육논집』 3, 1982, 59쪽. 즉 경명왕과 경애왕의 모는 의성왕후로서 현강왕의 女였으므로, 김부는 경명왕, 경애왕과 모계 친족으로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음을 주장하였다.

31)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의 용례는 경순왕 외에는 확인되지 않지만, 『고려사』에서 단편적으로나마 족제와 표제로 지칭되는 인물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신라 사회를 비롯해 고려 사회에서도 족제와 표제로 지칭되는 이종 혹은 내종의 정치 참여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이러한 추정이 허락된다면, 경순왕 역시 전왕의 표제 내지 족제였기 때문에 그의父인 효종과 달리 정치 참여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차후에 기회가 있다면 보다 심도 있는 이야

- E-1-① 奇皇后의 族弟 奇三萬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강탈했으므로 정치도감에서 장형에 처한 후 하옥시켰는데 거기서 죽어버렸다(『고려사』 권37, 세가37, 충목왕 3년 정해 3월 무진일조).³²⁾
- E-1-② 忠穆王이 즉위해 정치도감을 설치하자 기주가 자신의 죄를 알고 楊廣道로 달아났는데, 按廉使 金珪가 체포해서 都監으로 압송해 장형에 처했다. 기철의 族弟 奇三萬도 권세를 믿고 불법을 자행하며 남의 토지를 빼앗았다(『고려사』 권131, 열전44, 반역5, 기철조).³³⁾
- E-2. 왕이 孝思觀을 찾아가 우왕과 창왕을 처형한 것을 태조의 영전에 고했는데 그 祝文은 이러했다. “(중략) 그러나 恭愍王이 자식을 두지 못하고 별세하게 되자 역적 李仁任이 국정을 농단하려고, 辛旽의 婢妾 般若의 소생 禰를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리고는 族弟 李琳의 딸을 우에게 시집보내 낳은 아들을 昌이라 했으니, 우와 창 부자가 왕위를 잇는 바람에 국가의 정통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근자에 왕이 상국에 입조를 요청하자 상국 禮部에서는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냈습니다. (후략)(『고려사』 권45, 세가45, 공양왕 원년 기사 12월 계해일조).³⁴⁾

F. 인종 초 翰林學士로 임명된 뒤 寶文閣學士로 옮겼으나, 韓安仁의 表弟라는 이유로 李資謙의 미움을 받아 남쪽 변방으로 유배되었다(『고려사』 권98, 열전11, 정극영).³⁵⁾

E군은 족제, F는 표제로 지칭된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E-1에 언급되는 기삼만은 기황후의 족제인 동시에 기철의 족제이기도 한 인물이다. 그의 구체적인 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기황후, 기철과 동일

기를 하고자 한다.

32) “整治都監，以奇皇后族弟三萬奪人田，杖之下獄，死。”

33) “忠穆立，置整治都監，輒知其罪亡命楊廣道，按廉使金珪捕送都監，杖之。徹族弟三萬亦倚勢，恣行不法，奪人土田。”

34) “王詣孝思觀，以誅禰·昌，告于太祖，祝文曰，“(중략) 及恭愍王無子而上賓，賊臣李仁任，圖擅國政，乃以辛旽婢妾般若所生禰，立以爲君。嫁以族弟李琳之女，生男曰昌，父子相繼，國祚中絕。近者，昌請朝京師，禮部咨曰 (후략).”

35) “仁宗初，拜翰林學士，遷寶文閣學士，以韓安仁表弟，忤李資謙，流南裔。”

한 성씨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부계 혈통에 기반하여 맺어진 관계로 생각된다. 나아가 백부 내지 숙부의 자, 혹은 당숙의 자의 경우 종제, 당제, 재종제 등 구체적 용어로 지칭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고모의 자, 즉 內從弟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E-2의 이림은 그의父인 이교와 이조년의 女의 혼인으로 출생한 인물로, 이인임의 족제라 지칭되고 있다. 이인임은 이조년의 孫이므로, 이조년의 父와 이림의 母는 남매지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인임의 입장에서 이림은 고모의 자가 되므로, 이림은 앞선 기삼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인임의 내종제에 해당된다.

F에서 정극영이 한안인의 표제라는 기록은 정극영이 한안인의 이종동생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한안인과 정극영의 가계를 잠시 살펴보면, 한안인의 父인 한규와 정극영의 父인 정근은 평장사를 지낸 영광 김씨 김행경의 女들과 각각 결혼하였다. 때문에 한안인과 정극영은 각각의 母로 이어진 이종형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제한적인 사료이기는 하지만, 각각 E군과 F에서 지칭된 족제와 표제는 『고려사』 내에서 구분되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즉 『고려사』 편지들은 족제의 경우 부계 혈통에 기반하여 고모의 자인 내종제, 표제의 경우 모계 혈통에 기반하여 이모의 자인 이종제를 지칭한다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파악되는 것이다. 이를 경순왕에게 적용한다면, 그의 父인 효종과 경애왕의 父인 신덕왕이 각각 49대 헌강왕의 사위였기 때문에 경애왕과 경순왕은 모계로 이어진 이종형제 사이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실질적인 혈연관계를 고려한다면, ‘족제’ 보다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기록과 같이 ‘표제’가 더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C군과 D군에서 확인되는 족제와 표제는 단순히 각 용어들의 혼용에 따른 기록상의 차이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만약 족제와 표제의 사례가 많이 확인된다면 그러한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에서 족제와 표제의 사용 사례가 극히 제한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제한된 용례들이 구체적인 친족 대상을 지칭한다는 점은 신라 사회와 고려 사회에서 족제와 표제가 가리키는 대상이 엄연히 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경순왕은 경애왕과 모계로 이어진 이종형제 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D군과는 달리 C군에서 족제라고 표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3. 경순왕의 왕위 계승과 혈연에 기반한 왕위 계승 원리

경순왕은 직전 왕이었던 경애왕의 족제 내지 표제라는 혈연적 요인을 배경으로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다. 족제로서의 왕위 계승은 신라 하대는 물론 신라 전체의 왕위 계승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경순왕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었다. 사료 상에서 46대 문성왕의 예손으로 기록된 것³⁶⁾은 II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왕위 계승의 표면적인 명분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신라의 왕위 계승이 실질적으로는 전왕과의 혈연적 관계에 기반하여 계승되는 것인 만큼³⁷⁾ ‘문성왕의 예손’이라는 혈연적 관계보다는 ‘경애왕의 족제’라는 관계가 더 중시되었을 것이다.

경순왕이 49대 헌강왕의 외손의 자격으로 왕위 계승을 할 수 있었다는 기존의 견해 역시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다. 경순왕의父인 효종의 경우 헌강왕의 사위로서 효공왕 사후 왕위 계승 후보자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36) 주 10) 참고.

37) 직전 왕과의 혈연적 관계는 차기 왕위 계승권 설정에 있어 실질적인 왕위 계승 후보군의 범주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다른 헌강왕의 사위였던 신덕왕에게 왕위 계승권을 넘겨줌으로써 자연스레 신덕왕 가계로 왕통이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³⁸⁾ 실제로 신덕왕 이후 그의 아들들인 경명왕과 경애왕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3대에 걸쳐 박씨 왕이 재위해 나감에 따라 효종의 왕위 계승 자격 역시 자연스럽게 박탈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직전 왕과의 혈연관계와 사료 상에서 명분으로 내세우는 전대 왕들과의 혈연관계의 차이는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을까? 실질적으로 신라 하대에 왕위 계승이 가능했던 후보군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직전 왕과의 혈연관계를 비롯해 표면적 왕위 계승의 명분으로 내세운 혈연관계와의 비교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신라 하대 왕위 계승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들이 파악된다면, 직전 왕의 족제로서 왕위에 올랐던 경순왕의 즉위에 대한 이해 역시 새롭게 바라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경순왕을 ‘족제’와 ‘표제’로 다르게 지칭했던 사료 간의 차이 역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논지 전개에 편의상 관련 사안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신라 하대 왕과 前代 왕의 혈연적 관계

	왕	사료상 확인되는 전왕과의 관계 ³⁹⁾	직전 왕과의 관계
37	선덕	⑪내물왕의 10세손	㉞의 內從兄弟
38	원성	⑪의 12세손 ㉞의 弟	㉞의 弟
39	소성	㉞의 孫	㉞의 孫
40	애장	㉞의 太子	㉞의 太子

38) 일단 특정 왕에게 왕위가 넘어갔다면 그의 후손이 끊어지거나 특별한 이유로 다른 가계로 왕통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 계통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재환, 주 13)의 논문, 56쪽.

41	헌덕	㉓의 同母弟	㉔의 叔父
42	흥덕	㉔의 同母弟	㉔의 同母弟
43	희강	㉘의 曾孫	㉔의 從姪 & 조카사위
44	민애	㉘의 曾孫	㉔의 再從兄弟 & 妻男
45	신무	㉘의 曾孫 ㉔의 從弟	㉔의 再從兄弟
46	문성	㉕의 太子	㉕의 太子
47	헌안	㉕의 異母弟	㉕의 叔父
48	경문	㉕의 孫	㉕의 婿
49	현강	㉕의 太子	㉕의 太子
50	정강	㉕의 二子	㉕의 弟
51	진성	㉕의 女弟	㉕의 女弟
52	효공	㉕의 庶子	㉕의 姪
53	신덕	㉘아달라왕의 遠孫 ㉕의 婿	㉕의 妹兄 혹은 妹弟
54	경명	㉕의 太子	㉕의 太子
55	경애	㉕의 同母弟	㉕의 同母弟
56	경순	㉕의 裔孫 ㉕의 外孫	㉕의 族弟(姨從弟)

〈표 1〉에 따르면, 신라 하대 20명의 왕들 가운데 직전 왕과의 혈연관계를 고려했을 때 가장 많이 왕위에 오른 사례는 同母弟 혹은 弟의 관계로 즉위한 경우로, 38대 원성왕,⁴⁰⁾ 42대 흥덕왕, 50대 정강왕, 55대 경애왕 총 4명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태자 혹은 자로서 왕위 계승을 한 인물은 40대 애장왕, 46대 문성왕, 49대 현강왕, 54대 경명왕 4명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는 직전 왕의 숙부로서 왕위에 오른 사례와 재종형제로 왕위에 오른 사례이다. 전자의 경우 41대 헌덕왕, 47대 헌안왕이 해당되며, 후자의 경우 44대 민애왕, 45대 신무왕이 해당된

39) 해당 내용은 각 왕들의 『삼국사기』 즉위년조에 나타난 기사를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40) 물론 38대 원성왕이 직전 왕이었던 선덕왕의 弟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II장에서 논한 바 있으므로, 본장에서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다. 나머지 왕들은 직전 왕과의 혈연관계가 모두 다르게 확인되는데, 내종형제(37대 선덕왕), 孫(39대 소성왕), 종질(43대 회강왕), 사위(48대 경문왕), 女弟(51대 진성왕), 姪(52대 효공왕), 매형 혹은 매제(53대 신덕왕), 族弟(외종4촌, 56대 경순왕)의 사례가 한 번씩 확인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신라 하대 왕의 계승 유형과 사료상의 일치 여부

구분	유형	왕	사료상 나타난 前王과의 관계	일치 여부
(i)	태자(혹 자)	40)애장	39)의 태자	O
		46)문성	45)의 태자	O
		49)현강	48)의 태자	O
		54)경명	53)의 태자	O
(ii)	손	39)소성	38)의 손	O
(iii)	동모제(혹 제)	38)원성	17)의 12세손 / 37)의 제	O
		42)흥덕	41)의 동모제	O
		50)정강	48)의 二子	X
		55)경애	54)의 동모제	O
(iv)	숙부	41)현덕	39)의 동모제	X
		47)현안	45)의 이모제	X
(v)	사위	48)경문	43)의 손	X
(vi)	질	52)효공	49)의 서자	X
(vii)	내종형제	37)선덕	17)의 10세손	X
(viii)	종질	43)회강	38)의 증손	X
(ix)	재종형제	44)민애	38)의 증손	X
		45)신무	38)의 증손	X
(x)	여제	51)진성	49)의 여제	X
(xi)	매형 혹 매제	53)신덕	8)의 원손 / 49)의 사위	X
(xii)	족제(이종제)	56)경순	46)의 裔孫	X

〈표 2〉를 살펴보면, 신라 하대 왕위 계승에 있어 몇 가지 특징들을 확

인할 수 있다.

먼저 신라 하대 왕위 계승 사례는 태자(혹 자), 손, 동모제(혹 제), 숙부, 사위, 내종형제, 종질, 재종형제, 매형(혹 매제), 족제(이종제)라는 11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현왕의 사후 시 차기 왕위 계승권자를 설정하는 외연의 범주를 대략적이거나 상정할 수 있다. 가령, 일반적인 왕위 계승 후보자로 이해되어 온 (i), (ii), (iii), (iv), (v), (ix)⁴¹⁾, (x)의 사례 외에도 (vi), (vii), (viii), (xi), (xii)의 사례가 추가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통해 4촌에 해당하는 내종형제와 5촌에 해당하는 종질, 그리고 매형 혹은 매제까지도 왕위 계승 후보군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왕위 계승 후보군은 현왕을 기준으로 촌수가 없는 사위와 매형 혹은 매제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6촌 이내의 인물들이 상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²⁾

둘째, 대체로 부계 혈통 위주의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2촌 이내 관계에 있는 (i), (ii), (iii)을 비롯하여 3촌인 (iv), (vi), 4촌인 (vii), 5촌인 (viii), 6촌인 (ix)의 사례 모두 부계를 기준으로 왕실과 혈연관계에 있던 인물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신라 사회를 이해함에 있어 종족과 인척, 외척 등의 친당 집단의 존재⁴³⁾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⁴⁴⁾ 왕위 계승의 원리에 있어서만큼은 부계 혈통에 대한 강조가 가장 중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종제로서 왕위에 오른 경순왕은 유일

41) 신라 상고기에 (ix)의 자격으로 왕위 계승을 한 인물이 존재하는데, 22대 지증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후 44대 민애왕과 45대 신무왕의 즉위 이전까지 직전 왕의 재종제로서 왕위를 계승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지만, 지증왕의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은 재종제 역시도 왕위 계승 후보군에 포함된 인물이었음을 알려준다.

42) 이와 관련하여 김창겸, 주 6)의 책, 217쪽에도 제시된 바 있다.

43) 이종욱, 주 6)의 책, 296쪽.

44) 이와 관련하여 이인철은 이러한 친족집단을 하나로 포함하는 집단은 ‘양측적 친속’이라 규정한 바 있다. 이인철, 『신라골품제사회의 친족구조』, 『정신문화연구』 39, 1989, 164쪽.

하게 모계 혈통에 따라 왕위에 오른 예외적인 경우이다.

셋째, 직전 왕과의 관계와 사료 상 확인되는 사례가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8명으로, 그 유형을 살펴보면, (i), (ii), (iii)에 국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와 (ii)의 경우 예외 없이 직전 왕의 관계가 사료 상 기록으로 이어진다. 이때 (i)와 (ii)의 왕위 계승 순번은 당연히 (i)가 1순위이며, (v) 유형과 비교해 봤을 때 사위보다는 손이 더 왕위 계승에 유리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ii)의 경우 직전 왕의 동모제였던 42대 흥덕왕과 55대 경애왕이 사료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것과는 달리 50대 정강왕, 52대 효공왕의 경우 사료 상에 직전 왕과의 관계가 아니라 각각 ‘二子’와 ‘庶子’로 언급되어 있다. (x) ‘여제’의 범주까지 확장시킨다면, 51대 진성왕 역시 직전 왕과의 혈연관계와 사료 상 나타나는 관계가 불일치함을 알 수 있다.

효공왕의 경우 사료에 헌강왕의 서자로 기록되어 있는 만큼 실제로는 51대 진성왕의 姪이라는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왕위 후보 계승자가 되었겠지만, 왕위 계승의 명분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는 49대 헌강왕의 ‘서자’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왕위 계승의 원리의 특성상 ‘姪’보다는 ‘서자’일 경우가 더 높은 순번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인다.

정강왕의 경우 48대 경문왕의 ‘二子’라 하여 직전 왕이었던 헌강왕과의 형제지간임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정강왕과 헌강왕이 동모제가 아닐 경우이다. 실제로 『삼국사기』 정강왕 즉위조에는 그의 모에 대한 계보가 확인되지 않으며,⁴⁵⁾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44대 민애왕의 弟라고 하여⁴⁶⁾ 헌강왕과 다른 계보가 서술되어 있다.⁴⁷⁾ 다만 진성왕이 경문왕의 女가 아닌, 헌강왕의 ‘여제’임을 강조

45)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정강왕 즉위조, “定康王立. 諱晃, 景文王之第二子也.”

46) 『삼국유사』 권1, 왕력편, “金氏, 名晃. 閔哀王之母弟. 丙午立而崩”

47) 물론 양왕의 연령으로 보아 정강왕을 민애왕의 동모제로 보기는 어려우며, 『삼국유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동모제의 경우 왕위 계승 후보자들 가운데 태자손과 마찬가지로 높은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특히 진성왕의 사례에서 보듯이 ‘女’ 보다는 ‘제’의 위치가 왕위 계승 순번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라 하대 왕위 계승에 있어 그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는 태자 혹은 자, 손, 동모제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제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로 (iv)의 유형은 두 사례이기는 하지만, 양왕 모두 직전 왕의 숙부라는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왕위를 계승했음에도, 41대 헌덕왕의 경우 39대 소성왕의 동모제, 47대 헌안왕의 경우 45대 신무왕의 이모제라 하여 모두 2대 전왕의 弟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숙부 혹은 백부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자격보다는 ‘제’라는 자격이 왕위 계승 원리에 더 부합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헌안왕은 헌덕왕과는 달리 이모제임에도 ‘제’를 강조했다라는 점은 왕위 계승 순번상 ‘제>숙부·백부’라는 구조가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로 (viii), (ix) 경우 모두 직전 왕과의 종질 내지 재종형제임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두 원성왕의 증손임을 강조했다라는 사실이다. 이는 5촌인 종질과 6촌인 재종형제가 비록 왕위 계승 자격이 부여되었던 대상에는 포함되었을 지라도, 그것을 명분으로 삼기에는 부족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겠다. 동시에 ‘증손’이라는 관계가 더 유효한 명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6대 혜공왕의 내종형제라는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즉위한 선덕왕이 내물왕의 10세손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부계 혈통 중에서도 고모를 통한 내종지간의 경우 본인이 속한 가계의 중시조

사』 왕력의 진성여왕 즉위조에서 헌강왕과 정강왕의 同母妹임을 밝혀 사료상 충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헌강왕과 정강왕의 계보가 달리 서술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강왕이 헌강왕의 동모제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격 인물의 혈통임을 내세우는 것이 명분상 더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계 혈통으로 이종제였던 경순왕 역시 자신이 속한 가계의 중시조격인 문성왕의 齋孫임을 강조하는 것이 왕위 계승의 명분을 확보하는 데 유리했을 것이다. 다만, 후술하겠지만 족제가 부계적 혈통인 내종제를 지칭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계적 혈통인 이종제였던 경순왕이 경애왕의 족제라 표기된 것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신라 하대의 왕위 계승은 대체로 부계적 혈통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왕위 계승 후보군에는 6촌 이내의 인물들과 사위, 매형 혹은 매제까지도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왕위 계승 후보군들의 서열을 혈연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태자 > 손 ≥ 동모제 > 서자 & 二子 & 사위⁴⁸⁾ > 숙부 & 女 & 질 & 종질 & 재종제 > 매형 혹은 매제 ≥ 내종제’라는 구조로 도식화할 수 있다.

이러한 신라 하대 왕위 계승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순왕을 바라본다면, 그는 부계적 혈통과도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왕위 계승 후보군에도 포함되지 않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부계적 혈통의 ‘족제’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혈연관계와는 다른 혈연관계가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경애왕의 족제 경순왕의 즉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는 C군 사료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족제’, D군 사료인 『고려사』, 『고려사절요』에는 ‘표제’로 기록됨으로써 사료 간 명확한 구분이

48) 신라 하대에서 직전 왕의 사위로 왕위를 계승한 사례는 경문왕밖에 확인되지 않는다. 경문왕이 왕위 계승의 명분으로 내세운 조건이 43대 회강왕의 손임을 고려할 때 ‘손’의 혈연관계가 ‘사위’보다 왕위 계승에 더 근접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형 혹은 매제로 왕위를 계승한 신덕왕이 49대 헌강왕의 사위라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보아, 사위라는 요인이 매형 혹은 매제보다는 우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이상의 비교군이 존재하지 않으니 과거 사위로서 왕위에 오른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의로 ‘서자’ 혹은 ‘이자’와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였음을 밝혀둔다.

가능하다는 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듯하다. 즉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경우, 김부식과 일연이 편찬했을 당시 근거했던 사료들의 원전 등을 고려했을 때, 경순왕의 부계적 혈통을 강조함으로써 그의 왕위 계승을 정당화하고자 했던 신라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신라의 외손으로 왕위에 오른 고려 제8대 현종 이후 왕통을 계승한 자는 모두 그 자손이라는 점을 강조한 『삼국사기』 기록⁴⁹⁾을 통해 보건대 경순왕이 골품제에 의거한 왕위 계승권자였는지에 대한 유무는 고려의 정통성과도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고려 시대에 편찬된 C군의 사료에서는 경순왕이 왕위 계승을 할 수 있었던 혈연적 요인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족제’라 기록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반면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경우 양 사서가 조선 전기에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 시기에는 신라 경순왕에 대해 ‘망국의 마지막 왕’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경순왕의 실제 혈연관계였던 ‘표제’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본고는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의 즉위 요인을 살펴보면서 ‘혈연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작성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경순왕의 즉위를 검토함에 있어 ‘포석정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요인에만 초점을

49)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순왕 9년 12월조 사문, “若敬順之歸命太祖, 雖非獲已, 亦可嘉矣. 向若力戰守死, 以抗王師, 至於力屈勢窮, 則必覆其宗族, 害及于無辜之民. 而乃不待告命, 封府庫, 籍郡縣以歸之, 其有功於朝廷, 有德於生民甚大. 昔錢氏以吳·越入宋, 蘇子瞻謂之忠臣, 今新羅功德過於彼遠矣. 我太祖妃嬪衆多, 其子孫亦繁衍, 而顯宗自新羅外孫, 卽寶位, 此後繼統者, 皆其子孫, 豈非陰德之報者歟.”

맞추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다. 한 명의 왕이 즉위하는 요인을 검토함에 있어 혈연적 요인 역시 정치적 요인 못지않게, 오히려 왕위 계승 후보자를 설정하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경순왕의 즉위 배경에서 확인되는 특수성에서부터 망국의 마지막 왕이라는 시대성까지 결부되다 보니 정치적 요인에 대한 연구에만 치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실제로 신라 왕위 계승 과정을 살펴봄에 있어 혈연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은 등치되어 다루어질 요소가 아니라, 정치적 요인은 혈연적 요인의 하부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즉, 혈연적 요인에 근거하여 여러 명의 왕위 계승 후보자들이 상정된다면, 그들 가운데 여러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특정 후보자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때문에 본고는 경순왕이 즉위할 수 있었던 혈연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장에서는 ‘족제’와 ‘표제’라는 사서 간의 기록 차이에 대한 의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특히 『고려사』에서 확인되는 ‘족제’와 ‘표제’의 용례를 바탕으로 현재 이해되는 개념과는 달리 사용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신라 왕위 계승에 있어 직전 왕과의 혈연관계에 중요성을 언급한 뒤 3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신라 하대 왕위 계승 원리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경순왕이 실제로는 신라 하대 왕위 계승권을 가진 인물로 보기는 어렵지만, ‘족제’라는 부계적 혈통의 용어를 통해 왕위 계승 자격의 미흡함을 보완하는 동시에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고에서는 경순왕이 즉위할 당시 신라 내 여러 정치적인 요인들, 가령 경애왕이 경명왕의 동생으로서 왕위를 이었고, 견훤이 경주를 습격한 이후 경애왕의 동생인 효렴을 포로로 잡아갔던 정황, 그리고 경애왕의 아들에 대한 기록이 전하지 않았던 정황 등을 근거로 하여 견훤이 효렴 다음의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인 김부를 왕위에 추대하였다는 내용들을 쉽

게 추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는 어디까지나 ‘혈연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의도였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의 논고에서 다룰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구당서』 『신당서』 『고려사』 『고려사절요』

2. 단행본

권영오, 『신라하대 정치사 연구』, 해안, 1997.

김갑동, 『나말여초의 호족과 사회변동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0.

김창겸, 『신라 하대 왕위계승 연구』, 경인문화사, 2003.

서의식, 『신라의 정치구조와 신분편제』, 해안, 2010.

선석열, 『신라 왕위계승 원리 연구』, 해안, 2015.

신형식,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1984.

이기동,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개정판), 을유문화사, 1996.

이재환, 『신라 진골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이종욱, 『신라골품제연구』, 일조각, 1999.

_____, 『신라의 역사』 2, 김영사, 2002.

井上秀雄, 『朝鮮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3. 논문

권덕영, 「신라 하대 박씨세력의 동향과 ‘박씨 왕실」, 『한국고대사연구』 49, 2008.

권영오, 「후백제군의 포석정 승격과 경순왕 올림」, 『한국고대사탐구』 13, 2013.

_____, 「신라하대와 신라말」, 『역사와 경계』, 2014 .

김갑동, 「신라의 멸망과 경주세력의 동향」, 『신라문화』 10·11, 1994.

김복순, 「신라하대 불교계의 동향」, 『신라문화』 10·11, 1994.

_____, 「나말여초 전환기의 경순왕」,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석문이기동교수정년기념논총』, 주류성, 2009.

김정숙, 「김주원 세계의 성립과 변천」, 『백산학보』 28, 1984.

김창겸, 「신라 경순왕의 가계와 그 신분」, 『신라문화』 44, 2014.

박순교, 「신라 경애왕 죽음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삼국유사』 기록을 중심으로-」, 『국학연구론총』 16, 2015.

선석열, 『신라 왕위계승 원리 연구』, 해안, 2015.

신호철, 「신라의 멸망과 견훤-견훤이 신라멸망에 끼친 영향-」, 『충북사학』 2, 1989.

_____, 「신라의 멸망원인」, 『한국고대사연구』 50, 2008.

- 음선혁, 「신라 경순왕의 즉위와 고려귀부의 정치적 성격」, 『전남사학』 11, 1997.
- 이기동, 「신라최망사관의 개요」,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집』, 1981.
- _____, 「후삼국시대의 전개와 신라의 종언-내란기 신라 조정의 내부사정-」, 『신라 문화』 27, 2006.
- 이명식, 「신라말 박씨왕대의 전개와 몰락」, 『대구사학』 83, 2006.
- 이배용, 「신라하대 왕위계승과 진성여왕」, 『친관우선생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1985.
- 이인재, 「나말여초 사회변동과 후삼국」, 『한국중세사연구』 29, 2010.
- 이인철, 「신라골품제사회의 친족구조」, 『정신문화연구』 39, 1989.
- 이종항, 「新羅의 下代에 있어서의 王種의 絶滅에 대하여」, 『법사학연구』 2, 1975.
- 장동익, 「김부의 책상부고에 대한 일검토」, 『역사교육논집』 3, 1982.
- 장일규, 「신라 금석문의 말세의식과 미륵신앙」,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연구』, 한국학 중앙연구원, 2005.
- 전기웅, 「신라 하대말의 정치사회와 경문왕가」, 『부산사학』 16, 1989.
- _____, 「신라의 멸망과 박씨왕실」, 『한국민족문화』 31, 2008.
- 정선용, 「고려 태조의 신라왕경 방문과 존왕론」, 『한국사상사학』 47, 2014.
- 조범환, 「신라말 박씨왕의 등장과 그 정치적 성격」, 『역사학보』 129, 1991.
- _____, 「신라말 경순왕의 고려 귀부」,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상)』, 1994.
- _____, 「신라말 화랑 세력과 왕위계승-(김)효종과 김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57, 1999.
- _____, 「고려 태조 왕건의 대신라정책」, 『고문화』 55, 2000.
- 조인성, 「신라말 농민반란의 배경에 대한 일시론-농민들의 세계관과 관련하여-」, 『한국국대사연구』 7, 1994.
- 최병헌, 「신라하대 선종구산파의 성립」, 『한국사연구』 7, 1972.
- 하일식, 「신라 말, 고려 초의 지방사회와 지방세력-향촌 지배세력의 연속성에 대한 시론-」, 『한국중세사연구』 29, 2010.
- 황선영, 「경순왕의 귀부와 고려초기 신라계세력의 기반」, 『한국중세사연구』 14, 2003.

〈Abstract〉

Principles of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of the Late Silla Dynasty through the Ascension of King Gyeongsoon of Silla

Lee Choun Woo

It was written with a focus on 'blood factors' as it looked at the ascension factors of King Gyeongsoon, the last king of Silla. This resulted from previous studies reviewing the ascension of King Gyeongsoon, focusing only on political factors surrounding the "Poseokjeong Incident." Above all, the question of who had the right to succeed the throne was the starting point without specific criteria for the principle of succession to the lower Silla Dynasty.

In looking at the process of Silla's succession to the throne, it was judged that the blood factors and political factors were not factors to be dealt with on a par with. In other words, if the blood-related factors set the standard for several candidates to assume the throne, it is thought that a particular candidate could be crowned by various political factors among them. Therefore, this book focused on the question of the difference in records between the librarians 'jogje(族弟)' and 'pyoje(表弟)' in Chapter II in order to identify the blood-related factors that King Gyeongsoon was able to succeed. In particular, it was intended to state that it was used differently from the concepts currently understood based

on the examples of 'jogje(族弟)' and 'pyoje(表弟)' found in 『Goryeosa(高麗史)』.

Chapter III mentioned the importance of the blood relationship with the king before and based on this, he wanted to look at principles of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of the late Silla Dynasty. Although it is difficult to regard King Gyeongsun as a figure who has the right to succeed to the lower Silla Dynasty, the term 'jogje(族弟)' was used to supplement his qualifications for succession to the throne while securing the legitimacy of his succession.

key word : King Gyeongsun,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the late Silla dynasty, jogje(族弟), pyoje(表弟)

접수일자 : 2019년 3월 17일

심사완료 : 2019년 3월 31일

게재확정 : 2019년 4월 8일